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 및 영향력과 공감능력,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Influence of Empathy, Aggression, Self-Esteem on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in Preschoolers

오 명 자¹⁾ 신 유 림²⁾
Myung Ja Oh Yoo Lim Shin

I. 서론

유아기는 가정을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회측정법(sociometry)으로 이 방법에서는 또래로부터 받은 긍정 지명의 빈도와 부정 지명의 빈도를 계산하며 이를 기초로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측정하게 된다(Cillessen, 2009). 사회적 선호도는 긍정 지명에서 부정 지명의 빈도를 뺀 점수로 계산되며 유아가 또래들로부터 선호되고 인기가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Cillessen, 2009). 반면에 사회적 영향력은 긍정 지명과 부정 지명을 합산한 점수로 계산된다. 긍정 및 부정 지명과 상관없이 지명되는 빈도수가 학급에서 유아가 또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학급에서 여러 명의 유아들중에 쉽게 눈에 띄는 사회적 가시성(social visibility)과 존재감을 반영한다(Cillessen, 2009).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선호도는 아동의 대인관계 유능감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변인이므로 사회적 선호도를 예언해주는 행동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인기집단(popular group) 아동들은 공감능력과 친사회성의 수준이 높고 사교적이고 협동적이다(Nelson, Burner, Coyne, Hart, & Robinson, 2016). 특히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White, 2014), 또래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Gleason, Jensen-Campbell, & Ickes, 2009).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사회적 선호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공감적 반응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Mostow, Izard, Fine, & Trentacosta, 2002). 이와 다르게 공감능력이 결핍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공감능력,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 307명이다. 사회측정법을 사용하여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였고 자기 보고법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교사 보고법으로 공감능력과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 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공격성은 낮았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공감 능력은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이었고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선호를 높이기 위해 공격성의 억제뿐만 아니라 공감능력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개입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급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이 엄격한 규칙으로 금지되지 않고 또래들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양상을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공감능력
공격성
자아존중감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시간강사, 제1저자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교신저자
(yoolim@catholic.ac.kr)

되면 타인의 정서와 의도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부적절한 반응하게 되며 이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또래로부터 거부를 야기시킬 수 있다(Mostow et al., 2002).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갈등조절행동은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공감은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Carreras et al., 2014). 예를 들어, 공감능력이 발달된 아동은 비공격적이며 타인을 돕는 친사회적 해결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선호도가 높았으나, 이와 다르게 공감능력이 결핍된 아동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적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Carreras et al., 2014).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긍정 지명과 부정 지명을 모두 받는 양면아 집단(controversial group)으로 또래집단에서 영향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친사회성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함께 보이는 독특한 행동 특성을 보이며 특히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Nelson et al., 2016).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양면아 집단은 거부집단(rejected group)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지만 또래집단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높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공격성에 대한 보복을 경험하지 않는다(Nelson et al., 2016).

Hawley(2003)는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인 전략과 강압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아동을 양면적 전략조절자(bistrategic controllers)로 칭하였다. 이 아동들은 외향적이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Hawley, 2003). Rodkin, Farmer, Pearl과 Van Acker(2000)는 또래들에게 인기 있는 남아들을 서로 다른 행동특성을 보이는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 집단은 전형적인 인기아동들로 친사회성과 협동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며, 또 다른 집단은 공격성 수준이 높고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매력적이면서 거친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Rodkin et al., 2000).

아동은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

다. 또래들에게 배척되거나 소외된 경험은 유아기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반면에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는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하영희, Edwards, 2004). 특히 또래집단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동은 스스로를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또래들에게 빈번하게 주목을 받고 매력적인 파트너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래들이 이 아동을 따라하는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Hawley & Little, 1999).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아동들이 공격성과 같은 행동 특성을 활용하여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점에서 흥미로운 집단이나 이 아동들의 행동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Hill & Merrell, 2004). 최근에 또래집단의 지위를 나타내는 또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명망(social reputation)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라는 개념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반면에 지각된 인기도는 학급에서 눈에 띄고 우월한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아동은 사회적 존재감(social visibility)을 보이지만 또래들에게 반드시 선호되지는 않으며, (Lease, Musgrove, & Axelrod, 2002). 지각된 인기도를 기준으로 인기집단, 평균집단 및 비인기집단으로 구분해본 결과, 많은 양면적 아동이 지각된 인기아동 집단으로 구분되었다(Parkhurst & Hopmeyer, 1998). 즉 지각된 인기도는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양면적 아동을 설명하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공격적인 청소년의 50%는 또래들에게 거부되지만 나머지 중 일부는 또래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또래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학급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기아로 평가되었다(Estell, Cairns, Farmer, & Cairns, 2002). 반면에 사회적 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므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도금혜, 최보가, 이지민, 200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또래관계를 반영하는 두 개념인 사회적 선호도는 한 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호감을 반영하는 개념이며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 영향력은 또래집단에서의

힘, 지위, 존재감을 반영하며, 사회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공격성은 또래 집단의 거부와 항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래 집단 내에서의 존재감, 가시성, 중심성(centrality)과 같은 기준에서 볼 때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특성일 수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선호도의 프레임에서 공격적인 아동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결함이 있으며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집단(rejected group)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에 지각된 인기도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집단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존재감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아동들도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에 대한 보다 확장된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배척 및 공격성의 가해, 피해 관계 등 다양한 또래관계의 특성이 유아기에도 나타나며, 유아들도 또래집단에서 인기 있는 다른 유아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또래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강인설, 정계숙, 2008). 더불어 유아기부터 사회적 선호도 및 영향력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이 나타난다(Nelson et al., 2016).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은 초등학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유아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이 하향화되어 일 상적으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유아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선호도 및 영향력과 같은 또래관계 내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정보는 유아기 또래관계를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기의 또래관계는 이후 발달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임을 고려해볼 때 또래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유아기에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또래관계에 대한 초기 발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관계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은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이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한 6곳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표집된 만 5세 유아 30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관의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육기관의 학급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담임교사에게 총 3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30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남아 151명(49.2%) 여아는 280명(50.8%)으로 총 307명이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8)의 사회측정법(sociometry)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을 한 명씩 기관의 빈 교실로 데리고 가서 학급의 유아들 전체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유아들의 사진을 3장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가 같이 노는 것이 재미없고 싫어하는 유아를 3장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학급별로 유아의 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유아가 또래로부터 받은 긍정지명 빈도와 부정지명 빈도를 표준점수인 z점수로 변환하였다.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는 긍정지명 z점수에서 부정지명 z

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은 긍정지명 z점수와 부정지명 z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계산되었다.

2)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보고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체적 공격성(예; 다른 유아로 부터 놀릿감을 빼앗는다) 5문항과 관계적 공격성(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놀이집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로 협박한다) 6문항을 포함한 11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척도의 Cronbach's α 를 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87, 관계적 공격성은 .94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Harter와 Pike(1984)의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을 육아정책연구소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수정한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적 능력 6문항, 신체적 능력 6문항, 또래 관계 6문항과 어머니와 관계 6문항을 포함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보조자가 조용한 장소에서 유아 1인당 약 10~15분 동안 개별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Cronbach's α 를 보면, 인지적 능력은 .64, 신체적 능력은 .65, 또래관계는 .70, 어머니 관계는 .66으로 나타났다.

4) 공감능력

유아의 공감능력은 Auyeung 등(2009)이 개발한 아동용 EQ-C(Children's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를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2015)가 번안·수정한 교사 설문지로 측정되었다. EQ-C는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3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각 하위요인은 정서적 공감(예; 다른 사람이 울거나 아파하면 같이 마음 아파한다) 11문항, 사회적 반응(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 6문항, 인지적 공감 (예; TV

나 그림책 속 주인공의 슬픈 이야기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6문항이다. Cronbach's α 를 보면, 정서적 공감은 .85, 사회적 반응은 .78, 인지적 공감은 .7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 석·박사 과정의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에서 마련한 독립 공간에서 유아와 개별 면접으로 사회측정법과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유아 당 검사에 약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학급의 담임 교사에 의해 완성된 공격성과 공감능력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의 기초 통계치

측정변인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z점수로 계산된 사회적 선호도의 $M = .00$, $SD = 4.95$ 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향력은 $M = 6.00$, $SD = 3.32$ 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M = 2.26$, $SD = .31$)의 평균이 신체적 공격성($M = 1.94$, $SD =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능력($M = 3.57$, $SD = .4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능력($M = 3.27$, $SD = .52$), 어머니 수용 ($M = 3.27$, $SD = .51$), 또래수용($M = 3.16$, $SD = .64$)순이었다. 공감능력은 인지적 공감($M = 2.98$, $SD = .37$)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반응($M = 2.90$, $SD = .46$), 정서적 공감 ($M = 2.76$, $SD = .34$)순이었다.

2.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표 1. 측정변인의 기초 통계치 (N = 307)

변인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M	SD
사회적 선호도		12.00	-20.00	0.00	.00	4.95
사회적 영향력		20.00	0.00	5.00	5.99	3.32
긍정지명		4.07	-1.22	0.00	0.00	1.00
부정지명		4.97	-0.88	-0.29	0.00	1.00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4.00	1.00	2.00	1.94	0.58
	관계적 공격성	4.00	1.00	2.00	1.99	0.61
자아존중감	인지적 능력	4.00	1.33	3.67	3.57	0.42
	신체적 능력	4.00	1.50	3.33	3.27	0.52
	또래관계	4.00	1.33	3.17	3.16	0.64
	어머니 관계	4.00	1.67	3.33	3.27	0.51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	3.91	1.09	2.82	2.76	0.34
	사회적 반응	3.83	1.33	2.83	2.90	0.46
	인지적 공감	4.00	1.67	3.00	2.98	0.37

았으므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나 나타났다($r = -.35, p < .001$).

긍정지명빈도와 긍정지명빈도와 신체적 공격성, 자아

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긍정지명빈도는 신체적 공격성($r = -.19, p < .001$),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 중 또래관계($r = .14, p < .05$), 정서적 공감 ($r = .31, p < .001$), 사회적 반

표 2. 긍정지명빈도와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07)

측정변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1	2	3	4	5	6	7	8	9
긍정지명 빈도	-.19**	-.08	.05	.05	.14*	.03	.31**	.27**	.23**

* $p < .05$, ** $p < .01$

(1=신체적 공격성, 2=관계적 공격성, 3=인지적 능력, 4=신체적 능력, 5=또래관계, 6=어머니 관계, 7=정서적 공감, 8=사회적 반응, 9=인지적 공감)

표 3. 부정지명빈도와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07)

측정변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1	2	3	4	5	6	7	8	9
부정지명 빈도	.40**	.22**	.04	.08	.03	.04	-.37**	-.48**	-.39**

** $p < .01$

(1=신체적 공격성, 2=관계적 공격성, 3=인지적 능력, 4=신체적 능력, 5=또래관계, 6=어머니 관계, 7=정서적 공감, 8=사회적 반응, 9=인지적 공감)

응($r = .27, p < .001$), 인지적 공감($r = .23,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부정지명빈도는 신체적 공격성($r = .40, p < .001$) 및 관계적 공격성($r = .22,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정서적 공감 ($r = -.37, p < .001$), 사회적 반응($r = -.48, p < .001$), 인지적 공감($r = -.39,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사회적 선호도는 신체적 공격성($r = -.37, p < .001$), 관계적 공격성($r = -.19,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에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공감($r = .41, p < .001$), 사회적 반응($r = .46, p < .001$), 인지적 공감($r = .39,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유아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은 반면에 공격성의 정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사회적 영향력은 신체적 공격성($r = .27, p < .001$), 관계적 공격성($r = .16,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능력과 또래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영향력은 정서적 공감($r = -.15, p < .01$), 사회적 반응($r = -.29, p < .001$), 인지적 공감($r = -.24,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

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 수준이 낮고 공격성의 수준이 높으며 신체적 능력과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즉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는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여 또래 집단에서 존재감과 힘을 발휘 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공감능력이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설명력

유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 분석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Durbin-Watson계수와 VIF계수와 조사한 결과, Durbin-Watson계수는 1.77~1.80으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VIF지수는 1.41~3.10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유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의하면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공감능력($\beta = .46, p <$

표 4. 사회적 선호도와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07)

측정변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1	2	3	4	5	6	7	8	9
사회적 선호도	-.37***	-.19**	-.00	-.03	.05	-.02	.41**	.46**	.39**

** $p < .01$, *** $p < .001$

(1=신체적 공격성, 2=관계적 공격성, 3=인지적 능력, 4=신체적 능력, 5=또래관계, 6=어머니 관계, 7=정서적 공감, 8=사회적 반응, 9=인지적 공감)

표 5. 사회적 영향력과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07)

측정변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1	2	3	4	5	6	7	8	9
사회적 영향력	.27**	.16**	.07	.12*	.13*	.07	-.15**	-.29**	-.24**

* $p < .05$, ** $p < .01$

(1=신체적 공격성, 2=관계적 공격성, 3=인지적 능력, 4=신체적 능력, 5=또래관계, 6=어머니 관계, 7=정서적 공감, 8=사회적 반응, 9=인지적 공감)

.001)이었으며, 설명력은 26.10%로 나타났다($F = 25.71, p < .001$).

표 6.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사회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N = 307$)

변인	β	t	F	R^2
신체적 공격성	-.09	-1.11	25.71***	26.10
관계적 공격성	.03	.47		
자아존중감	.01	.34		
공감능력	.46	6.98***		

*** $p < .001$

유아의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가장 설명력이 있는 높은 변인은 관계적 공격성($\beta = .27, p < .001$)이었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beta = .13, p < .05$)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전체 모델의 총 설명력은 14.1%였다($F = 11.98, p < .001$).

표 7.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이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N = 307$)

변인	β	t	F	R^2
신체적 공격성	.02	.25	11.98***	.14
관계적 공격성	.27	3.58***		
자아존중감	.13	2.47*		
공감능력	-.06	-1.16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선호도와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 사회적 선호도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수준이 높은 반면에 공격성의 수준은 낮았다. 공감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해줄 수 있다.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은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의 수준이 높았다(송승희, 장경은, 2015). 또한 공감은 Big 5 성격이론에서 친화성(agreeableness)을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이다(Mooradian, Davis, & Matzler, 2011). 따라서 공감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래들에게 선호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감능력,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는 학급에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유형의 공격성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격성이 또래들 사이의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illessen과 Mayeux(2004)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양면아 집단은 공격성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는 공격성이 또래 거부와 관련성이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매우 다른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은 신체적 능력과 또래관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는 신체적 능력과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우위를 갖게 해줄 수 있다(Puckett, Aikins, & Cillessen, 2008).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과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횡단 연구 설계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두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 즉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영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유아기에 또래관계의 경험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발달과제이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두 변인 간의 상호적인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선호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공감능력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Wang, Wang, Deng과 Chen(2019)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은 친사회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가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에 또래와 갈등상황에서 공감은 친사회적인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원만한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Carlo et al., 2012),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관계적 공격성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공격적인 유아가 또래들로부터 부정 지명뿐만 아니라 긍정 지명을 함께 받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유아들은 공격성으로 인하여 유아들로부터 선호되지 않는지만 사회적 힘을 발휘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돈독한 친구관계망(friendship network)이 형성하게 되고 이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지명을 받을 수 있다(Hawley, Little, & Card, 2007). 강인설과 정계숙(2009)의 양면형 인기아와 일반형 인기아를 특성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성에서 나타났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양면형 유아가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돈독해진 친구관계가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둘째,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양면형 유아는 상대에 따라 공격성을 조절하여 다르게 적응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 능력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강인설, 정계숙, 2009). 실제로 Slaughter, Michelle, Dennis와 Pritchard(2002)에 의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들이 마음이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적 공격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 선행 연구결과(Hawley, 2003)와 일치한다. 특히 신체적 공격성이 쉽게 관찰되는 것과는 다르게 유아기에 관계적 공격성은 소문내기, 친구관계 위협하기,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와 같은 은밀한 양상으로 나타나 피해 유아들에게는 해가 되지만 교사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 소문내기, 관계 단절 협박하기 등과 같은 관계를 이용한 공격성이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비교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고 교사의 비난과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을 읽고 해석하는 사회 인지능력에 기초한 행동이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더욱 빈번히 사용하게 된다(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설명력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에 신체적 공격성의 설명력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각된 인기도가 다시 관계적 공격성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Cillessen & Mayeux, 2004). 즉 아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공격성을 대신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을 사회적 영향력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계적 공격성이 더욱 강화되는 순환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아동은 또래들에게 우월하다고 평가되어 빈번하게 주목을 받고 모방과 관찰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Hawley & Little, 1999).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하면서 공격성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돈독한 친구관계망 내에서 공격성은 쉽게 모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들이 학급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공격성에 빈번하게 대상이 되는 피해 유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급에서 유아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또래관계의 양상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의 학급 내 유아들 사이에 발생하는 또래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힘을 지닌 영향력이 높은 유아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적 공격성 전략은 일반 유아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아동은 사회적 유능감은 결핍된 아동이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Nelson et al., 2016). 따라서 이러한 유아를 조기에 선별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격성의 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호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공감능력과 같은 긍정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공격적인 유아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학급 맥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Vaillancourt & Hymel, 2006), 유아교사는 학급에서 공격적인 행동들이 엄격한 규칙으로 금지되지 않고 또래들에 의해 사회적 힘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받는 맥락이 아닌지를 관찰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근거하였으므로 사회적 선호도와 공감능력 및 사회적 영향력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기초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연령에 따른 관련성의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외에도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은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로(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언어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관계의 유능감이 높았으며(김미진, 2013), 언어는 또래관계 시작하고 지속하며 갈등을 협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ostelnik et al., 2009). 또한 마음이론(theory of mind)과 같은 사회인지능력은 또래관계의 사교성 및 주도성과 같은 또래관계 유능감과 관련성이 보고되었다(정덕희, 2009; 차민선, 원계선, 2015). 또한 유아의 개인변인과 함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및 학급의 특성을 알아보는 추후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법으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대상이 어린 연령인 만 5세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설, 정계숙(2008). 만 3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배척을 중심으로. **열린 유아교육연구**, 13(4), 21-50.
- 고희갑, 심숙영, 임선아(2015). 유아용 공감 척도(EQ-YC) 타당화 예비연구. **아동교육**, 24(1), 59-80.
- 김미진(2013).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137-163.
- 도금혜, 최보가, 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2), 57-67.
- 송승희, 장경은(2015).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3), 59-75. doi:10.5723/KJCS.2015.36.3.59
- 정덕희(2009).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3), 31-50.
- 차민선, 원계선(2015).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마음이론 및 개인화된 정서추론 능력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1), 29-46. doi:10.20497/jwce.2015.4.1.29
- 하영희, Edwards(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121-132.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 1509-1521. doi:10.1007/s10803-009-0772-x
- Carlo, G., Mestre, M. V., McGinley, M. M., Samper, P., Tur, A., & Sandman, D. (2012). The interplay of emotional instability, empathy, and coping on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53(5), 675-680. doi:10.1016/j.paid.2012.05.022
- Carreras, M. R., Braza, P., Muñoz, J. M., Braza, F., Azurmendi, A., Pascual-Sagastizabal, E., Cardas, J., & Sánchez-Martin, J. R. (2014).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in social conflicts mediating the influence of cold social intelligence and affective empathy on children's social pre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4), 371-379. doi:10.1111/sjop.12126
- Cillessen, A. H. N. (2009). Sociometric methods.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ntext.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82-99). New York, NY, US: The Guilford Press.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doi:10.1111/j.1467-8624.2004.00660.x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3), 815-829. doi:10.2307/113057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doi:10.1111/j.1467-8624.1995.tb00900.x
- Gleason, K. A., Jensen-Campbell, L. A., & Ickes, W. (2009). The role of empathic accuracy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8), 997-1011. doi:10.1177/0146167209336605
- Estell, D. B., Cairns, R. B., Farmer, T. W., & Cairns, B. D. (2002). Aggression in inner-city early elementary classrooms: Individual and peer-group configur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8*(1), 52-76.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doi:10.2307/1129772
- Hawley, P. H. (2003). Strategies of control, aggression, and morality in preschooler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5*(3), 213-235. doi:10.1016/S0022-0965(03)00073-0
- Hawley, P. H., & Little, T. D. (1999). On winning some and losing some: A social relations approach to social dominance in toddlers. *Merrill-Palmer Quarterly, 45*(2), 185-214.
- Hawley, P. H., Little, T. D., & Card, N. A. (2007). The allure of a mean friend: Relationship quality and processes of aggressive adolescents with pro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2), 170-180. doi:10.1177/0165025407074630
- Hill, D. K., & Merrell, K. W. (2004). Characteristics of "controversial" children: An exploration of teacher and parent social behavior rating scale datase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5), 497-507. doi:10.1002/pits.10175
- Lease, A. M., Musgrove, K. T., & Axelrod, J. L. (2002). Dimensions of social status in preadolescent peer groups: Likability, perceived popularity, and social dominance. *Social Development, 11*(4), 508-533. doi:10.1111/1467-9507.00213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 learning.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역). 서울: 교문사(2009 원저 발간).
- Mooradian, T. A., Davis, M., & Matzler, K. (2011). Dispositional empathy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4(1), 99-109. doi:10.5406/amerjpsyc.124.1.0099
- Mostow, A. J., Izard, C. E., Fine, S., & Trentacosta, C. J. (2002). Modelling emo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73(6), 1775-1787. doi:10.1111/1467-8624.00505
- Nelson, D. A., Burner, K. C., Coyne, S. M. C., Hart, C. H., & Robinson, C. C. (2016). Correlates of sociometric status in Russian preschoolers: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soci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332-336. doi:10.1016/j.paid.2016.01.054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er-perceived popularity: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8(2), 125-144. doi:10.1177/0272431698018002001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0(4), 479-491. doi:10.1207/S15374424JCCP3004_05
- Puckett, M. B., Aikins, J. W., & Cillessen, A. H. N. (2008).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Aggressive Behavior*, 34(6), 563-576. doi:10.1002/ab.20280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Van Acker, R. (2000). Heterogeneity of popular boys: Antisocial and prosocial configu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14-24. doi:10.1037/0012-1649.36.1.14
- Slaughter, V., Michelle, J.,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0(4), 545-564. doi:10.1348/026151002760390945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4), 396-408. doi:10.1002/ab.20138
- Wang, M., Wang, J., Deng, X., & Chen, W. (2019). Why are empathic children more liked by peers? The mediating roles of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4(1), 19-23. doi:10.1016/j.paid.2019.02.029
- White, B. A. (2014). Who cares when nobody is watching? Psychopathic traits and empathy in prosocial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116-212. doi:10.1016/j.paid.2013.08.033

Influence of Empathy, Aggression, Self-Esteem on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in Preschoolers

Myung Ja Oh

Lecturer,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o Lim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pathy, aggression, and self-esteem on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in preschool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07 five year olds who were recruited from day care centers and pre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was measured with peer nominations. Empathy and aggression were measured by teacher ratings. Moreover, self-esteem was assessed using self-reports. The data was analys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preference is associated with empathy, however, social impact was associated with physical as well as relational aggress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actice of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may be related with peer status as early as preschool.

Keywords: social preference, social impact, empathy, aggression, self-esteem

Received July 30, 2019

Revision received August 29, 2019

Accepted September 15, 2019